전주매일 CMYK

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 | 연 | 성 | 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음 7월 17일) 제2117호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 경 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한·중·일 문화도시 전통문화로 손잡다

韓 전주 · 中 리장과 쑤저우 · 日 가나자와시 글로벌 전통문화도시 네트워크 추진단 구성 10월 비빔밥축제기간 동안 공동 마케팅 나서

전주시는 일본의 가나자와시, 중국의 쑤저우(소주)시, 중국의 리장시와 전통문화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의 전통문화와 전통가옥이 잘 보존돼있는 세계 도시들과 '글로벌 전통문화도시 네트워크'를 추진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00만명이 찾은 전주 한옥마을과 전주한지 등의 문화자원들이 전주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는 돌파구이자 원동력이라 보고 전주와 유사하게 전통문화를 도시 발전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세계도시들과 연대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가나자와시의 경우, 국가중요문화재 등 주요 전통건축물이 밀집된 찻집거리로 유명하고 중국의 쑤저우시와 리장시는 전통 정원이 어우러지는 고택과 6000여 전통가옥이 남아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리장고성과 같이 보존 가치가 높은 전통 가옥들이 여느 도시보다 잘 보존돼있다. 또, 이들 도시들은 전주시와 마찬가지로 가옥들을 중심으로 문화와 관광이 융성해진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시는 각 도시의 대표단과 한국관광공사, 관광협회 및 교수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전통문화도시 네트워크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주비빔밥축제가 열리는 10월에 각 도시의 대표단을 초청, '글로벌 전통문화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며 또한, 시는 향후 유럽의 주요 문화도시들과도 네트워크를 구축 확장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황권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제는 로컬이 글로벌인 글로컬 시대, 즉 지역이 잘돼야 국가가 발전하는 시기이다. 지금이야말로 전주가 국제적인 무대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성과를 이뤄낼 적기"라며 "글로벌 전통문화도시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전주시가 보유한 문화적 재산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완산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새단장'

전주 완산체육공원 인공암벽장이 오는 10월 전국체전을 위해 새단장됐다.

전주시는 2008년 준공이후 10년이 경과한 완산체육공원 인공암벽장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총 사업비 6억 4000만을 투입해 낡은 암벽패널 전체와 그에 부수적인 자재들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연평균 2,400여명이 이용하는 암벽장이 시민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쾌적한 시설로 바뀌었다.

또한, 시는 인공암벽장이 겨울철에는 이용이 어려운 만큼 실내 암벽장을 증축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실내 선수대기실(워밍업장)에는 소형 암벽장을 설치해 사계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사완료와 함께 26일에는 전주시산악연맹이 주관하는 '제1회 전주한옥마을배 스포츠클라이밍 대회'를 열고 전국체전을 앞두고 시설을 점검하기도 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암벽 종목이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암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주 인공암벽장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지난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손을 잡고 당원들에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해영, 박주민, 설훈 최고위원,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박광온, 남인순 최고위원.

'이해찬호' 민주당, 항해길 올라… 초선 2명 지도부 입성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이해찬, 42.88%로 당대표 선출
초선 박주민 · 김해영, 최고위원에
재선 박광온도 최고위원에 올라
여성 최고위원 몫은 재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 7선의 이해찬 의원이 당선됐다.

이 신임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총 득표율 42.88%를 얻었다. 경쟁상대였던 송영길 의원은 30.73%, 김진표 의원은 26.39%을 얻는데 그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전당대회는 일반국민여론조사 10%, 일반당원여론조사 5%, 대의원투표 45%, 권리당원 4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신임 대표는 모든 분야에서 두 후보를 앞섰다.

이 신임 대표는 특히 최고비율이 반영된 대의원 현장투표에서 40.57%를 얻었다.사전에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45.79%를, 국민여론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에서는 각각 44.03%와 38.2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이에 비해 대의원 투표 31.96%, 권리당원 28.67%, 국민여론조사 30.61%, 당원여론조사 36.30%를 득표했으며 김 의원은 각각 27.48%, 25.54%, 25.37%, 25.50% 등을 얻었다.

이 신임 대표는 향후 2년 간 민주당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 신임 대표는 오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갖고 총선 승리를 준비하는 한편 야당과의 협치에도 나설 전망이다.

이어 박주민 의원과 김해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에 입성했다. 40대 초선의원 두 명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은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국정운영 경험 등 무게감과 함께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까지 모두 챙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해찬 신임 당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어갈 최고위원 5명을 뽑았다. 이날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후보는 김해영 · 박주민 · 설훈 · 박광온 · 황명선 · 박정 · 남인순 · 유승희(기호순) 등 8명이었다.

투표 결과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21.28%의 득표를 받아 당당하게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2위를 차지한 '재선' 박광온 의원(16.67%)과의 격차는 4.61%p였다. 박주민 의원은 초선임에도 당원 등의 강력한 지지세를 직접 확인한 셈이다. 김해영 의원은 12.28%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3선' 설훈 의원은 3번째 높은 16.28% 득표율을 얻었다.

여성 최고위원 몫은 재선 남인순 의원(8.42%)이 챙겼다. 득표율로 하면 박정 의원이 9.30%로 5위지만, 민주당은 전당대회에 앞서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여성의원에게 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45%)과 권리당원(40%), 일반 국민 여론조사(10%), 일반 당원 여론조사(5%) 등의 투표로 뽑혔다.

최고위원에 두 명의 초선의원이 당선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선출직 최고위원으로 초선이 선출된 건 2013년 신경민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40대인 김해영(41), 박주민(45)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당내 '세대교체', '젊은 지도부' 분위기도 자연스레 형성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해영 의원은 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선거 전부터 '세대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열세 지역 지원 강화를 공약하는 등 영남권 대표주자도 자처했다. 세월호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정의로운 사회'를 토대로 당내 민주주의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를 통해 5명의 최고위원 중 재선 · 초선 의원 4명이 입성하면서 민주당 내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성 기자

이동국, K리그 상주 상무전서 득점골… 10년 연속 두자릿수 골

이동국(39 · 전북)이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이동국은 지난 25일 오후 7시30분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1 2018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전반 16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시즌 득점을 10골로 늘린 이동국은 역대 최초 10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의 금자탑을 쌓았다.

1998년 포항 스틸러스를 통해 K리그에 뛰어든 이동국은 광주상무, 포항, 성남FC를 거쳐 2009년 전북에 입단했다.

해외리그와 성남에서의 실패로 한물 갔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기도 했던 이동국은 전북에서 완벽히 부활했다. 전북 입단 첫 해인 2009년 22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매해 10골 이상씩을 책임지며 전북 공격을 이끌고 있다.

지난 시즌 10골로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이어간 이동국은 올해 24경기만에 10번째 골을 맛보며 K리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뉴시스

제2회 전라북도 아리울 어버이 합창대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주시민께 묻습니다

이 곳은 대체 어디일까요?

1. 전주시민 누구나 5분 거리에 갈 수 있는 곳
2. 쉽고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곳
3. 짜릿함과 즐거움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곳
4. 마음을 힐링해 주는 곳
5. 영원한 안식을 제공해 주는 곳

전주시설공단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자전거경륜장 월드컵경기장 월드컵골프장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덕진수영장 승마장 인라인롤러경기장 게이트볼장
론볼장 덕진체련공원 아중체련공원 완산생활체육공원 덕진공원 솔내체육공원 고덕축구장 교통약자이지콜 전주승화원 봉안당(원) 효자공원·공동묘지 효자자연장